

# “세계적 파스퇴르연구소 경기도 이전에 感謝”

##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기공식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월16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판교이전 건설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세계적 생명공학 연구기관의 경기도 이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6년 경기도의 토지 건물 무상제공 조건으로 판교 이전을 결정했던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오는 2009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KIST에서 판교 4천321평 7층규모 건물로 이전한다.

김 지사는 울프 네바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 프랑소와 아엘레 프랑소와 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 등 참석 관계자 200여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개토식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오늘 연구소가 성남에서 기공식을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스퇴르연구소가 경기도에 자리잡게 되는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프랑소와 아엘레 이사장, 울프 네바스 사장님,



그간 애써주신 채영복 전 장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파스퇴르연구소 기공을 통해 한국 프랑소와 우호관계는 훨씬 진작될 것이라고 믿는다. 인근의 수원 광교에도 바이오센터 등과도 연계될

것이고, 이 연구소가 세계적 연구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유명하고 역사도 오래되고 훌륭한 연구소가 기공식을 갖게 되는데 기쁘고 축하드리

다”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경기도 공직자들을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세계중별선수권대회 500m 세계 新기록

## 의정부시청 소속 이강석 선수 한국빙상의 快擧

의정부 빙상의 간판 이강석 선수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07년 세계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34초25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 한국 빙상의 역사를 다시 쓰는 쾌거를 일구어 냈다.

이강석 선수는 의정부시청 소속으로 1차 레이스에서 34.44로 러시아의 스미트리 로브코프에게 0.01초 차로 1위를 내주었으나, 2차 레이스에서 34.25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합계 68.690 초를 기록, 2위인 일본의 오이카와 유아를 0.33초 차로 말찌감치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세계신기록 달성과 세계 제패는 일본의 가토 조지의 종전 기록 34.40을 0.15초나 앞당긴 것으로 0.01초로 승부를 가르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눈부실만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 지난날 2007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이라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는 점이 더욱 고



무적이다.

지난해 12월27일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의정부시청 빙상팀에 입단한 이강석은 배기태-김윤만-이규혁의 계보를 잇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세대 빙상 스타다.

유치원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던 이강석은 의정부중앙초등학교와 의정부중학교, 의정부고

등학교를 거쳐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이후 다시 의정부시청팀에 입단하여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의정부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세계만방에 대한민국과 의정부의 위상을 드높인 이강석 선수를 시정으로 초청해 격려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서울농대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 竣工式

## 100개 기업 창업 590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경기도는 3월16일 신기술 창업의 활성화와 창업보육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설확장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에 소재한 3개 대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서울대 농생명대, 경기공과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총 30여명의 도비를 지원하여 그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건립 중에 있는 2개 창업보육센터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6월 경기공과대는 8월에 연차적으로 준공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3개 보육센터의 시설확장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3,708평의 보육면적이 증가되어, 추가로 100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59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45개의 창업보육센터에 691업체, 3,90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또는 연구소 내에 소재하고 있어 우수한 고가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활용한 신기술 창업의 산실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의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창업 보육센터의 특화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농협비씨카드 이용 적립금 전달반아

## 의정부시 사랑카드 이용 총5천300여만원 적립

의정부시가 3월15일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장으로부터 총 5천3백여만원의 카드 이용 적립기금을 전달 받았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와 공무원 복지카드인 사랑카드와 의정부시 법인카드 이용에 대해 무재해 1배 달성 체결을 통해 적립된 금액이다.

시는 제휴협약사에 의거 법인카드를 사용한 전 부서에서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총 금액의 1%를

적립하게 되며, 사랑카드는 시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일반시민이 사용한 사랑카드 사용금액의 0.1%를 적립하기로 협약한바 있다.

한편 시는 5천3백여만원의 적립된 금액을 시 접수입으로 예산 편성해 향후 불우이웃돕기 기금 재원과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책 등에 반영 해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로 대민행정 서비스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開會

의정부시의회(의장 이학세)는 제 161회 의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하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와 집행부에서 현재 공판중인 의정부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기금설치조례 등 조례와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기획·복지위원회는 21일 의정부시장에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의해 22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국제결혼이민자 위한 韓國文化 프로그램 운영

## 의정부정보도서관 매주 수·금요일 12주 동안 실시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먼저 첫 번째로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관내 거주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해 우리 글 익히기 프로그램을 3월14일 개강했다.

한국어회화와 글쓰기 프로그램은 17명의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간에 걸쳐 총 12주간 운영된다. 우리글 익히기 교육내용은 한국어회화 및 한글 쓰기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도서관의 책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관내 거주하는 국제이민자들을 위해 우리글 익히기는 물론 우리 역사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코오롱건설(주) 무재해 1배 달성

## 한국산업안전공단 표창장 수여식 가져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3월13일 코오롱건설(주)(소장 민경조) 고양 광광문화단지 기반시설공사 현장에 대해 무재해 1배 달성 인증서 및 무재해 운동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이번 무재해 1배를 달성한 건설현장은 2006년2월16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후 2007년1월25일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사업장을 이룩했다.

이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여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건설현장의 경쟁력 활성화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경기북부지도원 유재삼 원장은 인증서 수여식 축사에서 “무재해 1배를 달성한 고양 광문화단지 기반시설공사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무재해 운동 추진”을 당부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의정부시,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 公募

의정부시는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내외 청소년 문화정착과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창출을 위해 2007년도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거나 체육·문화·예술단체 중 청소년심신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프로그램의 창의성, 참여도 및 사업계획의 발전성 등을 심사하여 5개

단체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프로그램, 학부모,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신청서 접수는 3월19일부터 30일까지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접수한다.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 공모와 관련한 문의는 시청 가족여성과(828-2762)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4월7일 첫 경기 10월20일까지 25경기

## 의정부시, 2007피스 스타컵 연예인 축구대회 개최

의정부시는 3월16일 2007 피스 스타컵 연예인 축구대회를 의정부시에 유치하기 위해 피스 스타컵조직위원회와 조인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회 유치를 발표했다.

조인식에는 조연인 축구팀 각 단장과 임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유네스코 관계자, MBC ESPN, 스포츠조선 외 각 언론사 기자, 시의회 의장단과 체육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광정환 피스 스타컵조직위원회 회장이 서명을 했다.

2007 피스 스타컵 연예인 축구대회는 피스 스타컵조직위원회와 최종적으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유소년 및 일반 축구인들의 자부심을 도모하고 스포츠 연예인들을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 즐거움, 볼거리, 감동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연예인 축구리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스 스타컵을 통해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컨셉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출전하는 연예인팀은 탤런트블루, 탤런트그린, 영화배우, 가수, 개그맨, 모델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탤런트 블루팀은 단장에 안정훈, 선수로는 김세준, 선우재덕, 이광

기, 박용하 외 32명으로 구성됐으며, 탤런트 그린팀은 단장 정준호와 선수로는 임대호, 이종원, 강남길, 정용인 외 32명이 속해 있다.

김영인 단장이 이끄는 영화배우팀은 안성기와 박용호, 최민식, 송강호 등 30명의 선수로 구성됐으며, 김홍국 단장의 가수팀은 탁재훈, 이문세, 이승철, 홍경민 등 30명이 선수로 등록됐다.

개그맨팀은 단장에 서경석, 선수로는 이수근, 박성호, 고명환 등 24명이 나서며 모델팀은 박인동 단장을 비롯해 최정훈, 강신, 임준, 노경만 등 선수 39명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7일 오후2시 의정부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 경기

를 시작으로 매월2-3회, 토요일에만 열리며 리그전으로 10월20일까지 총 25 경기를 한다. 입장료는 1000원이다.

한편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세계 최초의 연예인 축구리그인 피스스타컵 2007 국제연예인축구대회를 의정부에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1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4월 7일부터 10월까지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물론 이번 대회가 단순한 축구대회가 아닌 의정부시의 문화축제 한마당으로 손색이 없는 대규모 행사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한중일 공연장 국제교류 문을 열다

##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협력토론회

의정부예술의전당(관장 이진배)은 3월10일 중국 선양(심안) 요녕대극원에서 한중일 공연장 대표자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 교류, 합작, 발전’을 주제로 동북아 3국의 문화 교류 확대에 관한 ‘한·중·일 극장 국제협력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진배 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일 3국간의 공연예술분야의 상호협력과 교류 증진에 대해 강조하고, 한·중·일 3개국 간의 실질적 네트워킹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이진배 관장은 ‘한·중·일 3개국 간의 물론 경기도공연장협의회와 중국북방극장협의회와의 공동창작, 공동제작 사업’을 제안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중국북방극장연맹회 리창청(李長淸 중국 요녕대극원 사장) 회장은 “예술합작사업이라는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 참석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기회를 살려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진배 관장은 또한 5월11일부터 펼쳐지는 의정부국제음악축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공연을 상호 교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예술단체 및 작품을 발굴하여 상호 초청 등을 통해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3국 대표지회회를 개최하는 등 토론회를 정례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성남아트센터, 경기도문화의전당, 고양문화재단, 인산문화예술의전당(이상 한국·경기도공연장협의회), 일본극장총합연구소, 일본청년관, 일본청년관대국장, 주식회사 넘버원(이상 일본), 북경세계극원, 요녕대극원, 허북예술센터, 허베이(하남)예술센터, 칭따오(청도)인민회당, 라오닝대극원, 영구요하대극원, 길림성동방대극원, 흑룡강성북방극원, 녜파대극원, 안후이(안휘)대극원, 대련에용연출유공회사(이상 중국·중국북방극원연맹) 등 20개 공연장, 공연 기획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공연장협의회 대표단 이행은 중국북방극원연맹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12일까지 5박6일간의 중국 일정을 마쳤다.

